

# 이슬성신절은 영원무궁토록 사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는 첫날

6천 년의 인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6천 년이라는 긴긴 세월 동안 일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6천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옛날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옛날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되는 날 쉬는 것을 옛날 동안 일을 하고 일요일 날 바로 쉬라는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면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토요일이 또 안식일이라고 토요일 날 쉬는 안식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바로 영적 말이요 성경 말씀은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면 마귀가 방해할 하게 되어있는 고로 짝이 있다고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서서 34장 16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라." 그러니까 짝을 맞춰야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의미가 풀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씀이 다른 성경 책에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루가 천 년과 같다'는 말은 지옥에 가면 괴롭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고로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진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짝을 맞춰서 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푸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은 바로 천당에서는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즐거운 고로 그런고로 천년 가는 것이 하루 가는 것처럼 빠르게 느껴진다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날짜에 대한 말씀을 짝을 맞춰서 보면 옛날 동안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하루가 천년과 같다

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을 해봐도 하루가 천년과 같이 해석하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옛날 동안 일을 하나님이 한다고 그랬지, 사람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가 천 년이면 옛날은 6천 년이므로, 하나님이 6천 년 동안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주기 위해 사람을 하나님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 하나님이 곧 이긴자요 또한 이슬 그 자체가 이슬이 되는 이긴자가 구세주

그런고로 6천 년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을 이제 이긴자의 영, 강한 영으로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영은 이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영이 되는 그 이긴자의 영은 바로 이슬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비같이 내린다고 했어요? 이슬같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긴자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긴자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된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슬과 같이 내리는 하나님은, 6천 년 동안 만들어진 강한 영이 되는 이긴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하나님)가 이긴자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곧 이긴자요 하나님이 또한 이슬 그 자체가 이슬이 되는 이긴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슬이 되는 이긴자는 백합화같이 핀다고 약속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구주는 산곡의 백합" 찬송가에도 있듯이 바로 구세주가 백합화라고 하는 고로 그런고로 그냥 이슬 내리는 자가 구세주라면 이슬 내리는 자를 마귀가 그냥 놔둘까? 죽이려고 할까? 죽여버리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를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이긴자는 관철하고



구세주 조희성님

이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이제 그대로 초보자 이긴자는 마귀한테 잘못하면 죽음을 당해? 안 당해? 당하는 거죠? 그럴까봐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이긴자를 한 명이라도 상할까봐 하나님께서 감춰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해 봐요. "구주는 산곡의 백합 명량한 새벽 별 만인 위에 뛰어나는 줄세." 구세주는 백합화라고 그랬죠? 또 명량한 새벽 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명량한 새벽 별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구세주가 아니라는 뜻이죠? 얼마나 분명하게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 명량한 새벽 별로 이제 이름을 지으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별 낳이 되는 음력으로 6월 28일 날 태어나게 했고 새벽 4시에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벽 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던 거죠? 그래서 빛날 희(희)자, 새벽 별은 빛나는 별이죠? 그래서 빛날 희(희)자 별 성(星)자로 빛나는 별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고로 새벽 별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안 쥐고 있는 사람이야? 새벽 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벽 별을 받은 사람이 곧 관철이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슬성신을 받아먹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구세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이와 같이 약속이 된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슬성신절은 바로 하나님이 이기신 날이요 또한 인간들이 전부 이제 그대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고로 이제 오늘을 기하여 여러분들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방권을 이겨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는 이제 첫 날이냐? 둘째 날이냐? 셋 날이냐? 그런고로 이 사람이 이슬성신을 받아먹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르쳐주죠? 마음이야? 몸이야? 마음이죠? 무슨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이슬성신을 먹는다는 거야? 안 먹는다는 거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 열반경 8권에도 감로를 먹으면 사람이 안 죽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감로를 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안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안 죽는 고로 그런고로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불경에는 "불심을 품어라."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전부 다 몰랐습니다. 주인공이 나와야 그 뜻을 해석해주고 주인공이 나와야 이제 그 모든 것을 알려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 이슬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내리는 걸까? 바로 이슬성신은 바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영일까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요 아시겠어요?

그런고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승려단에서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영생을 주는 이제 주인공 구세주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구세주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온 것을 마귀가 알면 그 구세주를 죽이려고 할까? 살리려고 할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 모조리 죽이려는 전략이야? 살리려는 전략이야? 죽이려는 전략이죠? 그런고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 이제 다 구세주가 되어야 돼? 한 사람만 구세주가 되어야 돼? 다 구세주가 되어야죠? 다 구세주가 되는 방법을 이 사람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 완전한 말씀을 하시는 일곱 번째 인을 때는 자

그 옛날에 단계 단계별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이제 가르쳐준 것을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면, 바로 옛날에 다섯째 인을 댄 영모님께서는 죄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피 속에 있다고 그랬죠? 죄가 피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때는 자는 지금 이제 무엇이 죄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의식이 죄라고 그랬죠? "나라는 의식의 마음이 피 작용이야? 물 작용이야?" 피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대로 다섯 번째 인을 댄 하늘의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더 완전한 말이야? 좀 모자란 말이야? 완전한 말씀이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 패하리라."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고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의식인 고로 그런

고로 '나라는 의식' 즉 나를 이기기만 하면 나를 죽이기만 하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나를 이기기만 하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간 시간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품으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라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니까 나를 이긴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을 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이제 그대로 오늘날 마음을 먹는 대로 바로 피가 변한다는 말은 바로 마음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하나님의 피로 변하면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고로 그런고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마음이 영인고로 마음이 영이면 피가 영이요, 피가 영이면 몸이 뭐예요? 몸이 영이죠? 이런 걸 알았어? 몰랐죠? 영육일체설을 이 사람이 논하는데 지금이 성경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불경학적인 논리를 논해? 안 논해? 논하죠? 이런 완전한 학설을 듣고도 이제 이 진리를 외면하고 떠난 사람, 그 저주 받은 인생이야? 축복 받은 인생이야? 저주 받은 인생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그대로 시간 시간이 "눈으로 보는 대로 보는 상대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하는데, 여러분들! 화난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화가 저절로 나? 안 나? 화난 사람 얼굴 쳐다보면 화가 나오 아시겠어요? 슬퍼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슬픈 마음이 나는 것은 슬픈 영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긴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긴자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적이요 이렇게 조리가 있고 합리적인 말씀을 해줘도 "이게 진짠까? 가짜일까?" 하는 그런 맹주가 저주받은 사람이야?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이하 줄임)\*

1993년 1월 1일 '이슬성신절, 1부 예배 말씀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 (4)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을 경유하다

### (4)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을 경유하다

에돔을 우회하려고 호르산에서 돌이켜 홍해의 예시온게벨(아카바)까지 내려온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은 예시온게벨의 인근에 있는 '중려나무 숲'이라는 엘랏(Elat)에서 장막을 치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홍해바다의 고기를 잡아 구워먹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 40년 6월(엘룰월) 중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기 위해 장막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엘랏에서 서북쪽 150킬로미터쯤에 있는 네겝 광야의 하스모나(가데스 바네아)로 향했습니다. 하스모나에서 진지를 구축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징집한 6만 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아다림(Atharim) 길로 해서 북진하였습니다. 그때 네겝을 지배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닷 왕이 군대를 풀어 이스라엘 군사들을 기습 공격하여 그들 중에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 6만 군사들은 하나님께 맹세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저 백성을 우리들에게 넘

겨주신다면, 우리들이 그들의 성을 공격하여 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전멸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곳 이름을 '호르마(Hormah)'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호르마란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에돔왕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닷왕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감람추수를 맞이하여 에돔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이 온갖 실과를 수레에 싣고 호르마와 오봇의 경계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를 알현하였습니다.

에돔왕은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은 예서의 자손인 에돔 사람과 형제지간이라는 당신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의 형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이 에돔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스라엘은 호르마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에돔왕의 호의를 받아들여 네겝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오봇(Oboth)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진을 치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40년 6월(엘룰월)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네겝 광야의 하스모나(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오봇에 진을 쳤습니다. 7월(타쉬리월) 1일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성회(거룩한 모임을) 열고 또한 나팔을 불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때 오봇 인근의 부논(Punon)에 거하는 에돔의 족장이 많은 실과를 수레에 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였습니다. 7월(타쉬리월) 10일은 이스라엘의 속죄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성회를 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단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을 하며 죄값을 치르는 절기로 지냈습니다. 또 7월(타쉬리월) 15일부터 이레 동안은 이스라엘의 초막절



에돔왕이 실과를 수레에 싣고 모세를 알현하다

(장막절)로 지냈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성회를 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단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을 하며 죄값을 치르는 절기로 지냈습니다. 또 7월(타쉬리월) 15일부터 이레 동안은 이스라엘의 초막절

출애굽 40년 8월(헤스완월) 초순에 이스라엘은 다시 오봇을 떠나 모압 국경에 잇닿은 동쪽 광야에 이르러 이에아바림(Iye-abarim)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아바림 북쪽에 세렛 골짜기가 동서로 뻗어 있는데, 그 골짜기의 경계로 남쪽은 에돔이요, 북쪽은 모압이었습니다.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친 후에, 모세는 모압 족장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아르(Ar: 모압의 고을)'를 유산으로 주었음이라'고 하셨소. 그러므로 우리가 모압을 지나가기를 할 것이니,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오"

모세의 전갈을 받은 모압의 사람들은 패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압의 땅은 아르논의 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르논 강의 북쪽에 해당하는 압복 강 이남의

1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압복 강 이남의 요단들과 사해 동편의 아르논 강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대지를 차지하였다. (신명기 2장 9절, 신명기 2장 19절, 창세기 13장 10절 참조)

요단들은 아모리 사람들이 점령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단들의 중심지 헤스본은 아모리인 왕 시혼의 도성(都城)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혼 왕에게 뺏긴 옛 모압 땅을 수복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8월(헤스완월) 중순에 아르논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강의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21장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변의 브엘(Beer)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브엘에서 북진하여 디본(Dibon)에 진을 쳤습니다. 디본에서 맛다나(Mahdi)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Nahaliel)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Bamoth)에 이르렀고,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갸(Mt Pisgab) 산 꼭대기 부근, 역시문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

2 비스갸산: 이 산은 노보산 줄기의 서쪽 끝에 봉긋이 솟아 있는 노보산(Mt Nebo)의 정상이다.